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원수가 비는 복

성경: 사무엘상 26장 17-25절

Tag:

17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 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18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19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이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와 기업을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20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 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21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22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23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며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24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25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라도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삼상26:17-25)

*다윗이 등장하는 배경

-사무엘과 사울의 갈등

-사울의 내적 갈등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한 불안함

-백성들의 반응, 왕국 초기의 불안함

-사무엘의 지도력에 반비례하는 기동성

-사울의 불신앙-아말렉과 아각 15 (대대적인 큰 전쟁)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함

-사울의 정신병

-요나단의 등장 -용맹하고 주도적인 자. 순전한 청년(13) 그러나 실
수함.(14)

-아말렉 진멸 전투(15) 사울왕의 실수

-다윗에게 기름 부음(16)

-악신이 사울을 괴롭힘(16)

-다윗의 청와대 입성 -기타리스트로서 수면 유도사

-4사람 모두 인간적인 약점들은 있으나, 다윗이 가장 영성이 뛰어났
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언약을 베푸셨다.

-골리앗의 등장; 가장 큰 자였으나, 겁이 가장 많은 자

-사울로서는 최대의 위기 앞에 공약 남발하게 됨.

-다윗의 도시락 심부름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의 승리

-일약 스타가 된 다윗.(17)

-천천 만만 사건(18)

-사울왕의 변심-다윗에 대한 질투

-미갈 때문에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왕의 질투를 잠재우지 못함(19)

-요나단의 맹세(20) 다윗의 도피생활

24장 엔게디의 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

26장 오늘 본문

27장 블레셋 아기스에게 가서 신하가 되는 다윗.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아픈 이. 빼지도 관 두지도 못한 이.

-그는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크게 은혜를 베푼 이.

-그는 법적으로 사위

-그는 정치적으로 위험인물(물론 자기 가치관으로는)

-그는 정권 유지 차원에서 신하들의 성토 대상 (여당 인사들이 하는 말)

+사울의 약점; 정신적 불안.

+계속되는 전쟁과 백성들을 거느리느라 스트레스가 심해짐

+사울의 반대자들에 대한 불안감-저들이 나를 버리고 다윗 편에 선다면? (모든 왕들의 최대 고민거리)

+급기야,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백성을 선택한 사울.

+사실은 아각이 보물로 사울을 농단함. 하나님의 명령보다 아각의 핏에 빠지는 사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남.

+다윗은 사울의 충신이면서, 최대의 정적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자.

+아들처럼 여기면서도, 여전히 한편으로는 정적

+차라리 요나단이 속 편한 인간.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영원한 친구

-요나단은 매우 낭만적인 자

-요나단은 진정한 다윗 빠.

-요나단은 진정한 영웅이며, 이상주의자

-그는 다윗이 왕위를 물려 받을 자이며, 다윗 왕국의 일등 공신이 될 자.

- 자연스럽게 왕족의 일원이 될 자.
- 그러나 사울왕과 더불어 전장에서 죽음.
- 다윗에게는 자신의 자녀들을 부탁함.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아버지같은 왕.

-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발탁한 자.
- 자신의 기타 소리에 잠을 청하는 소중한 어른.
- 신앙심과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기백 넘치는 청년
-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고 탄탄 대로를 걷는 영웅
- 왕의 사위가 되고, 왕권을 물려 받을 꿈에 부푼 자.
-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과 다윗 사이를 이간 하는 자들.
- 불안한 사울은 항상 정권욕이 넘치는 신하들의 말에 귀가 가려운 자.

-다윗의 위치가 점점 처량해져 갈 때 미갈이 다윗 편을 들

-다윗에게 있어서 미갈은 천사와 같은 존재

-그러나 미갈은 영적으로 다윗을 이해하지는 못함.

*십 광야에서의 다윗

- 광야와 수풀이 우거진 곳이 있었고, 과거 요나단과 헤어진 곳.
- 숨기 좋은 곳.
- 사울이 쫓자 험한 지형인 마온으로 도피.
- 여정이 피곤한 사울은 쉴 곳을 정하고 누워 잠을 자는데, 다윗은 용감하게 그 가까이 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온다.
- 그 때도 역시 아버지새가 나서서 사울을 죽이겠다고 자청함.

-과거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음.

24장. 엔게디 굴에서.

-다윗의 긴 항변

-사울의 고백

16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17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8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21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떨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26장, 십 광야. 마온지역

17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 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나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19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미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21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23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며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24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25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삼상26:17-25)

-원수가 비는 복. 이 축복이 가장 감동적인 축복. 다윗은 행복한 자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그늘에서 쉬기 원하는 자가 얻는 복.

*선으로 악을 이긴 다윗.

-악으로 선을 이기려고 했던 사울.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

-악으로는 이길 수 없다. 왜냐면 악한 마귀가 모두 망하게 하는 길을 짜 놓기 때문.

-오직 하나님은 선한 사람 편에 서신다.

-악한 자들은 서로 찌르고 죽게 하심으로 정의를 실현하심.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자비하심을 구하자.

-실수하더라도 낙심치 말라. 인생이 실수 투성이다.

-하나님은 더 좋은 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잠언 25장 11절 성경: 리더의 말 그릇 (김윤나)

Tag:

11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 (잠25:11)

말에는 각 개인마다 개성, 독특성, 습성, 정체성이 있다. 버릇, 습관, 전달력, 기술이 아니라 진심어린 관심 말 이전에 사람을 보라.

라떼;그냥 재미있는 말로 들어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듣지 말고, 지금이 얼마나 변했나를 가늠해 보라.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저 사람이 저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 나왔을까?

유도질문 No, 상대가 신날 수 있는 질문 Yes.

“아이 키우기 힘들지. 그래도 내 새끼 정말 잘 낳았다, 이럴 때는 언제야?”

“여태까지 후배들 키우면서 그래도 이 맛에 사람을 키우지, 했던 순간은 언제예요?”

키워서 내 보내라.

당신의 현재 감정의 색깔은 어떤 색인가요?

감정에 이름 붙이기, 자기 감정을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름 붙이기를 통해 자기를 먼저 이해하라. 색깔이나 음으로 표현하라.

파스텔 톤의 색깔로 표현하기.

놀람, 화남, 우울함, 귀찮음, 짜증나, 불안해, 기뻐, 기쁘고 눈물나, 기분이 상하고 이해해 주지 않아 답답하고 한 대 치고 싶고,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아.

화병과 우울증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해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병이다. (빨강머리 앤이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의 감정과 말을 채반에 걸러내기.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면 됨.

-쓰레기를 왜 내 맘에 담아? 버리면 되는 걸.

-소중한 사람의 말은 오래 남는 법이나, 쓰레기는 버리는 것이 답.

-내 마음의 색채. 분노, 기쁨, 만족, 자책, 사명감, 원망, 후회, 무상,

포기, 간절,

-유미의 세포들

*말하는 습관

*진심이라는 말의 함정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는 말은 '통제의 말'이 아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지만, 결국 자신의 경험 외에는 돕지 못한다.

*습관화 된 잘못된 표현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마음이 변해야 말이 변한다. 말 그릇이 변해야.

*말에는 그의 감정과, 공식과, 습관이 담겨있다.

1. 감정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른다. 아무거나 골라잡아 내 지른다.

-어른들은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과 친근해지라.

***당신은 중요한 감정을 느끼는가, 습관적인 감정을 느끼는가.**

-감정 분석하기

.몸의 반응

.진짜 감정을 찾아라. 그 속에 하고 싶은 말이 담겨있다.

- .말 못하는 것도 일종의 감정표현. 상대방에 대한 일종의 포기
-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가? -그를 볼 때 항상 그 감정이 튀어 나옴.
- .나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만들자.
- .감정별로 대응 버전을 준비하고 계속 다듬어 나가자.

2. 말에는 자기만의 공식이 있다.

- .자기만의 해석, 자기만의 반응. 자기만의 미래 예측
- .반복되는 현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엇을 바꿀까?
- .나도 너도 괜찮은 사람 (나도 너도 공식을 좀 수정해야 함.)
- .모든 공식 속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누구나 상대적으로 비정상적이다.
- .자기만의 공식을 발견하고 발전 시켜라.

3. 말 습관

- .불쑥 튀어나오는 말
- .스스로 녹음하고 들어보라
- .훈련을 통해서 개선된다.
- .젊은 사람들이 노인보다 낫다.

